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제103차 CATI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이념성향별 응답자 비율

CATI	21.9	45.9	26.5	5.7
------	------	------	------	-----

CATI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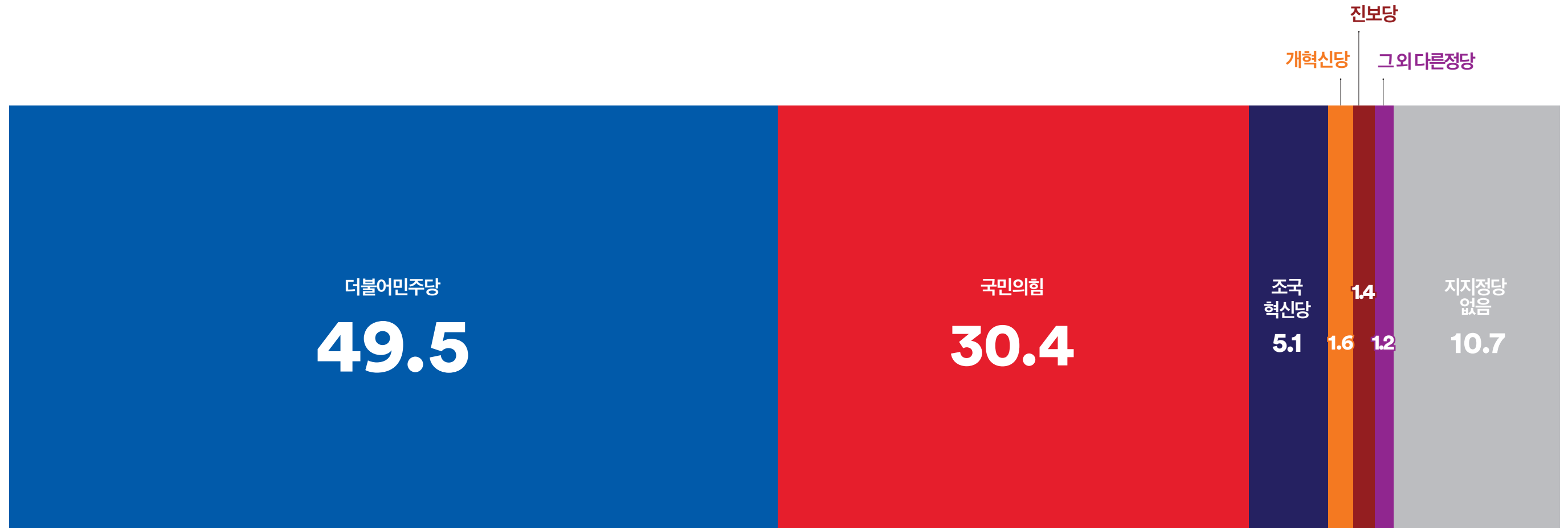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 비율		성별	지역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B/A)		
			전체	1003	100.0	1003	100.0	1.00			
			성별	남성	507	50.5	497	49.6	0.98		
표본크기	1,003명		여성	496	49.5	506	50.4	1.02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18~29세	155	15.5	155	15.5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30대	155	15.5	150	15.0	0.96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29,999개 / SKT: 15,000, KT: 9,000, LGU+: 5,999)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40대	172	17.1	174	17.3	1.01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5년 1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50대	199	19.8	197	19.6	0.98			
응답률	12.5% [총 통화시도 8,009명]		60대	173	17.2	177	17.6	1.02			
조사기간	2025년 2월 21일 ~ 2월 22일(2일간)		70세 이상	149	14.9	150	15.0	1.00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서울	188	18.7	187	18.6	0.99			
			인천·경기	325	32.4	325	32.4	1.00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8	10.8	0.99			
			광주·전라	98	9.8	97	9.7	0.98			
			대구·경북	96	9.6	98	9.8	1.02			
			부산·울산·경남	148	14.8	147	14.7	0.99			
			강원·제주	39	3.9	41	4.1	1.05			

WWW.
FLOWERRESEARCH.
COM

본 조사 결과의 저작권은 (주)여론조사꽃에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수정은 불가하며,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주)여론조사꽃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출처에 대한 명기와 함께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원서', '조사방법',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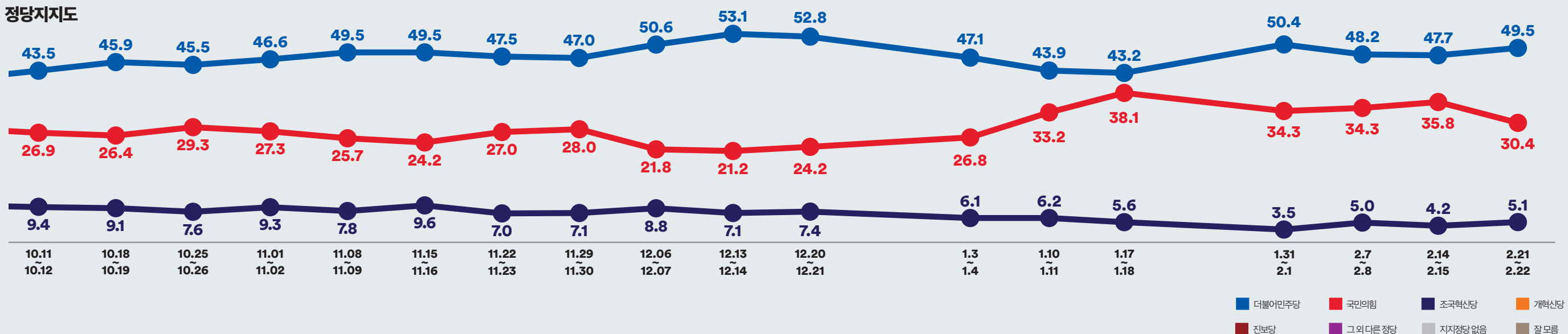
본 조사결과는 표본조사이므로 결괏값 해석 시 표본오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통계보정을 위해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성·연령대·지역(권역)별 사후가중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례수가 30명 미만일 경우, 이상치(outlier: 변수의 분포에서 비정상적으로 분포를 벗어난 값)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으므로 결과 해석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괏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였으며 결과에 대한 단순 합산 시 반올림 오차(round-off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부 항목의 단순 합은 100.0%가 아닌 99.9% 또는 100.1%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당지지도와 국정운영 평가는 재질문을 포함한 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무당층'은 보기에서 '지지 정당 또는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계층을 의미합니다.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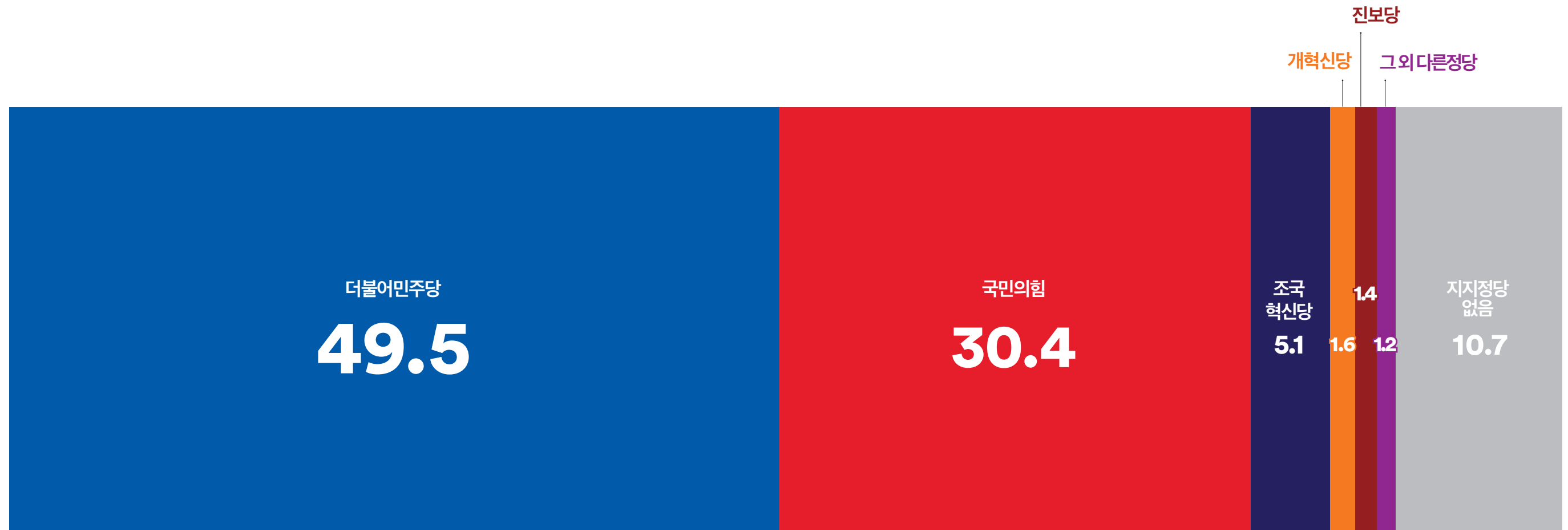


102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8%p 상승, '국민의힘' 5.4%p 하락, '조국혁신당' 0.9%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19.1%p (지난 조사: 11.9%p)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국민의힘' 간 격차는 24.2%p (지난 조사: 16.1%p)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모두 '국민의힘' 대비 우세

주차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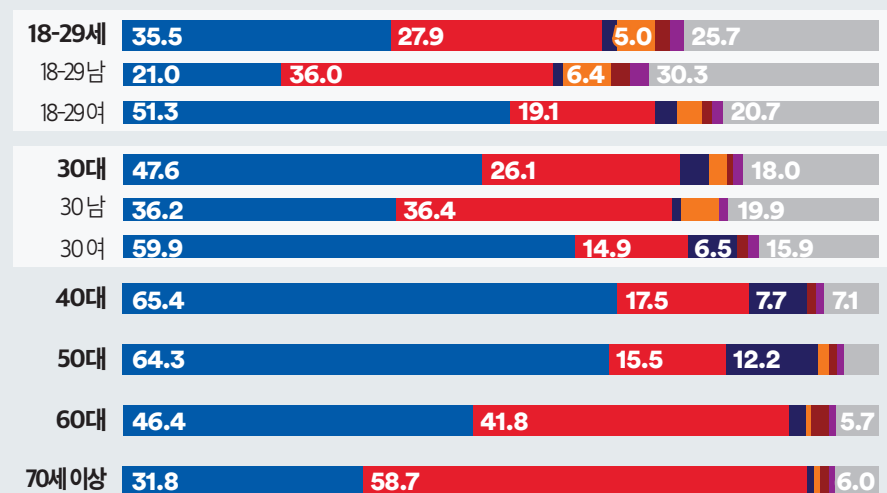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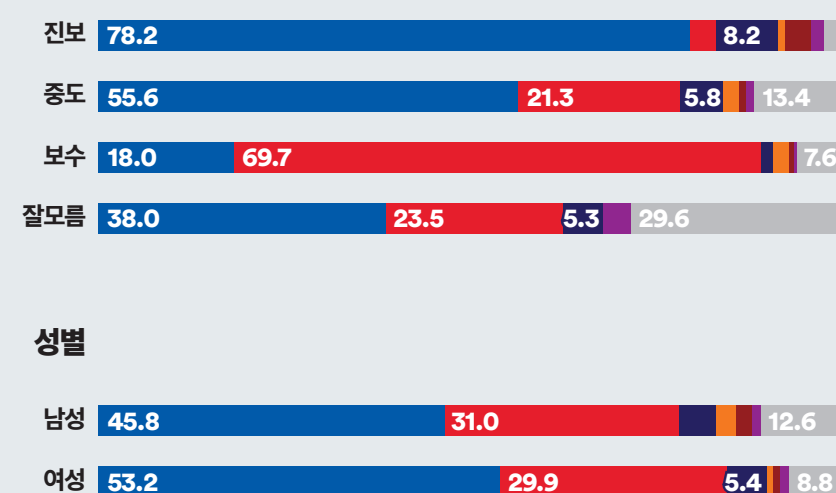


TK를 제외한 나머지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은 TK, 70세 이상 응답층과 보수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5.6%, '국민의힘' 21.3%, '조국혁신당' 5.8%
중도층에서의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간 격차는 34.3%p(지난 조사: 23.3%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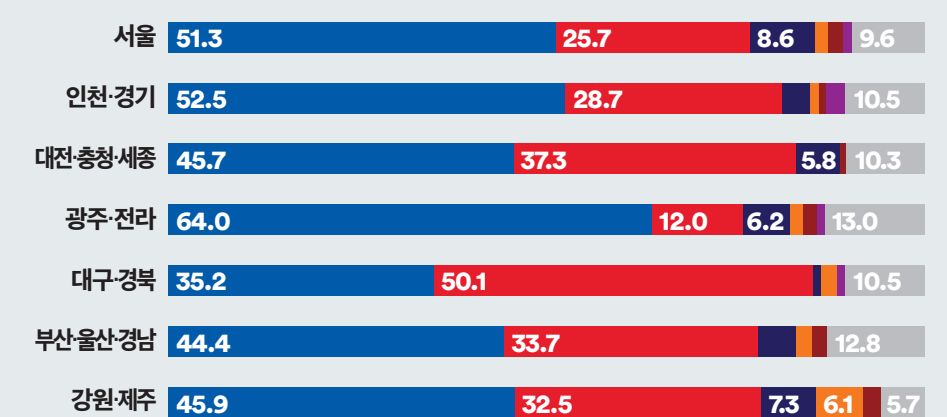
연령



이념성향



권역



Q.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체포대상자 명단 및 사살 방법, 장기 집권 관련 구상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수첩의 내용이 실행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실행되었을 것이다

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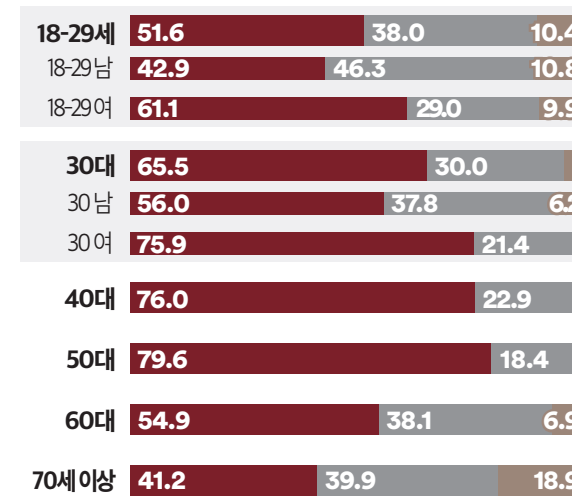
노상원 수첩의 내용은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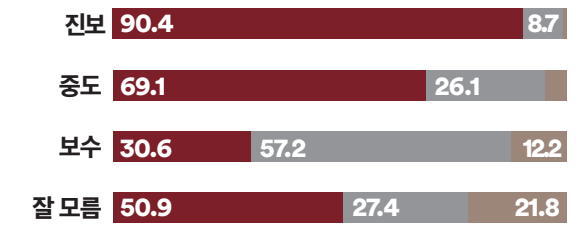
잘 모름 6.9

노상원 수첩의 내용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6명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실행되었을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31.8%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과 60대 이하 연령층, 중도층·진보층에서 '실행되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4.0%)과 보수층(57.2%)에서 우세를 보임
18-29세 남성층과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두 의견이 팽팽하게 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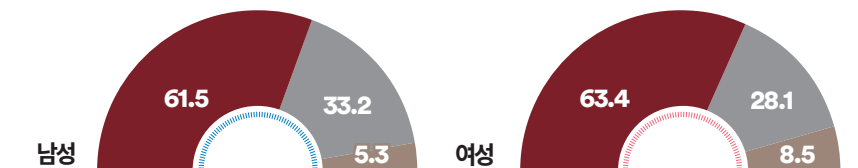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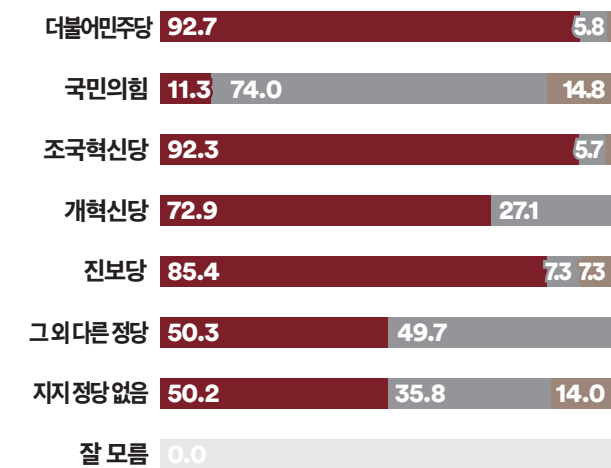
이념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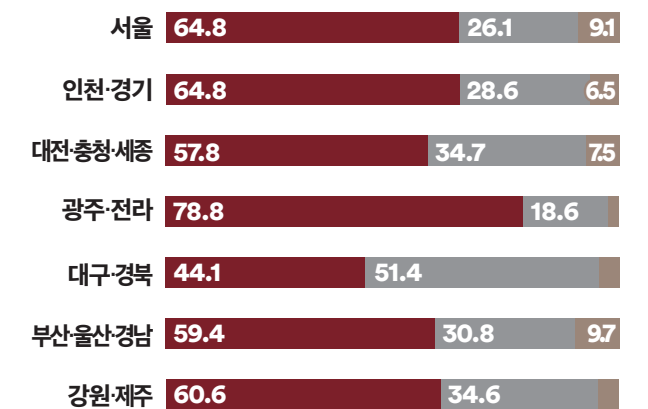
성별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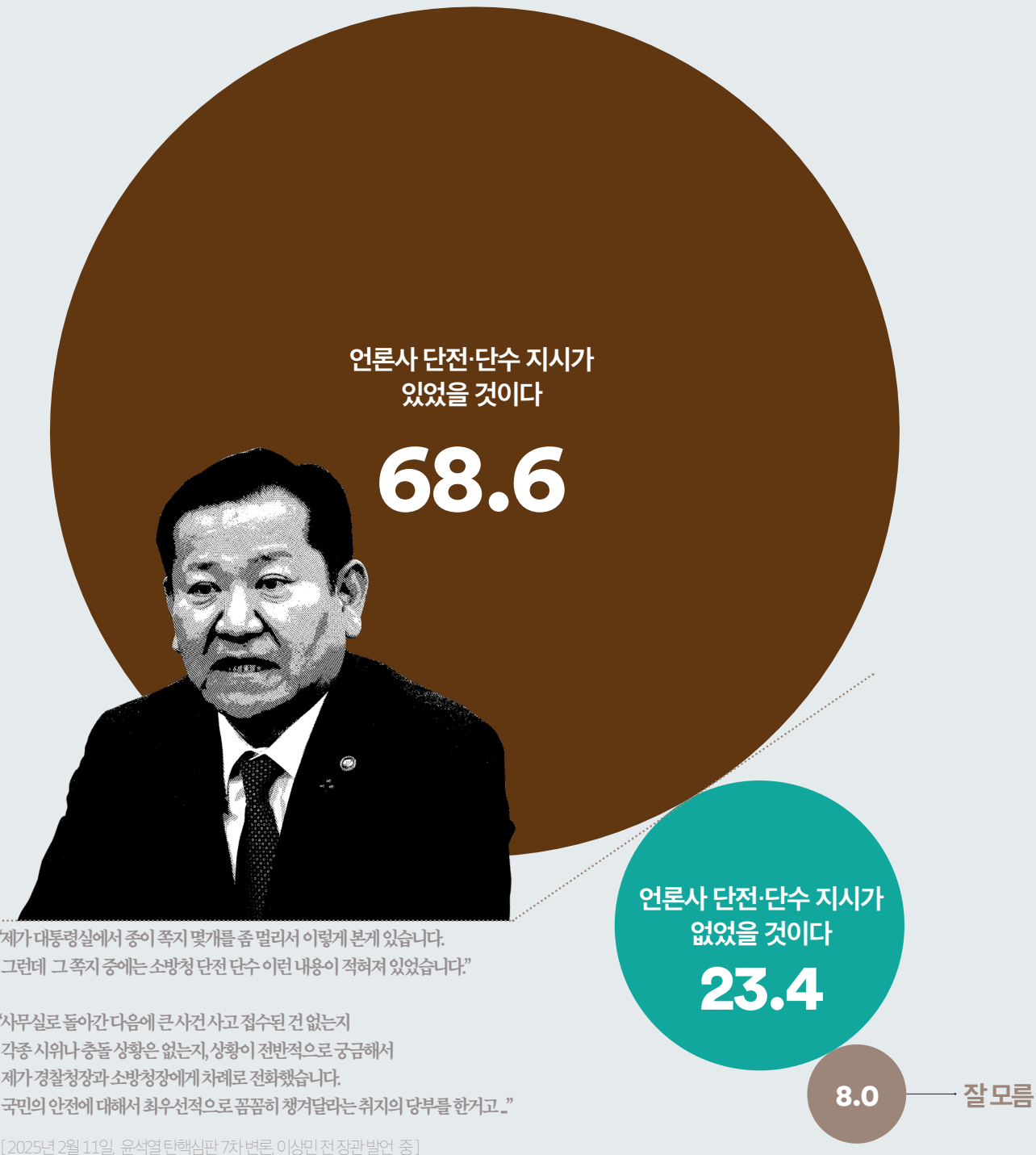
권역



■ 실행되었을 것이다 ■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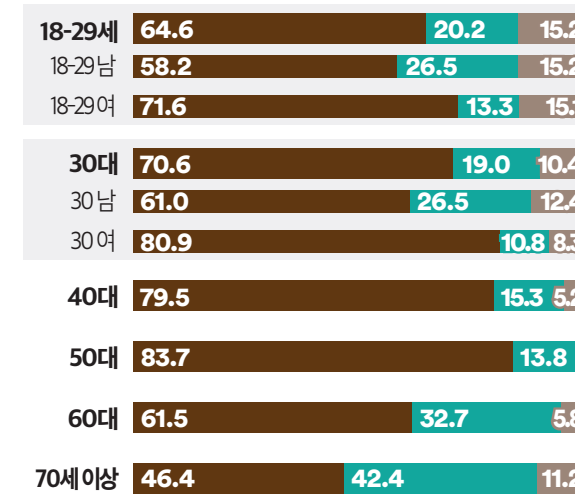
Q.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소방청장은 그런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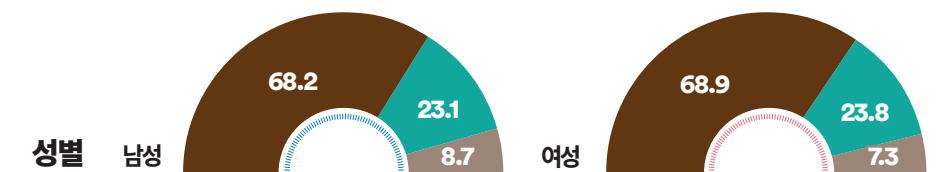


이상민 전 장관의 통화에 대해 68.6%가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45.2%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지시가 있었을 것’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특히, TK를 제외한 전 권역과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를 보여 주목됨
‘지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은 국민의힘 지지층(65.3%), 보수층(51.0%)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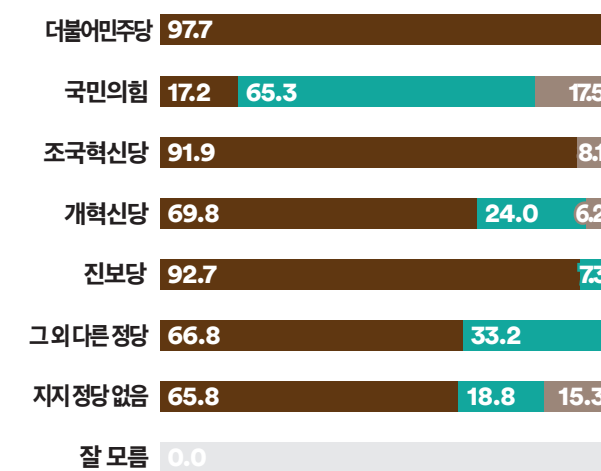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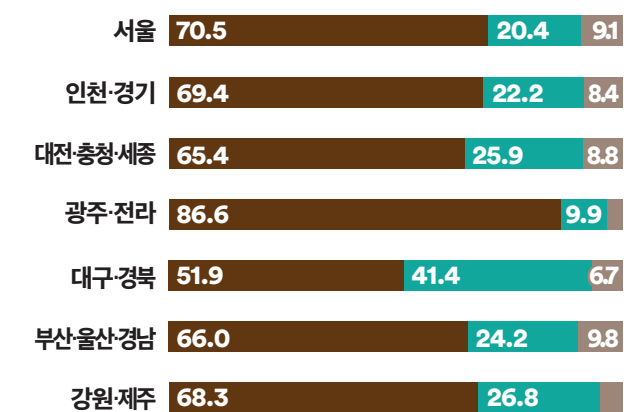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 ■ 지시가 없었을 것이다 ■ 잘 모름

Q.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조치 사항이 담긴 쪽지를 보지도 않고 실행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대행의 주장은
사실일 것이다
26.7

최 대행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다
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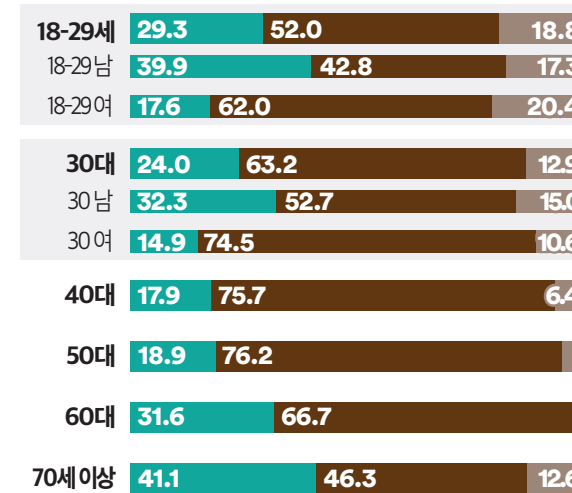
잘 모름 9.1

응답자 3명 중 2명은 “쪽지를 보지 않았다”는 최 대행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37.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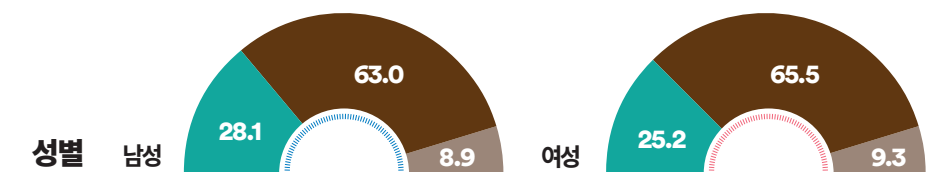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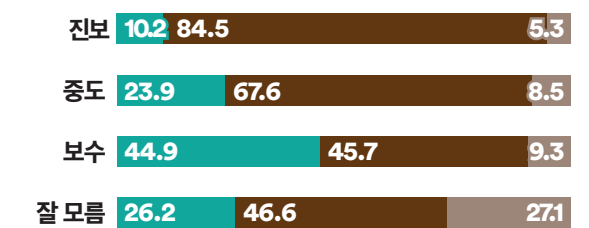
모든 권역과 연령층에서 ‘최 대행의 주장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를 보임

‘최대행의 주장이 사실일 것’이란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56.4%)에서만 높고 보수층은 두 응답이 비등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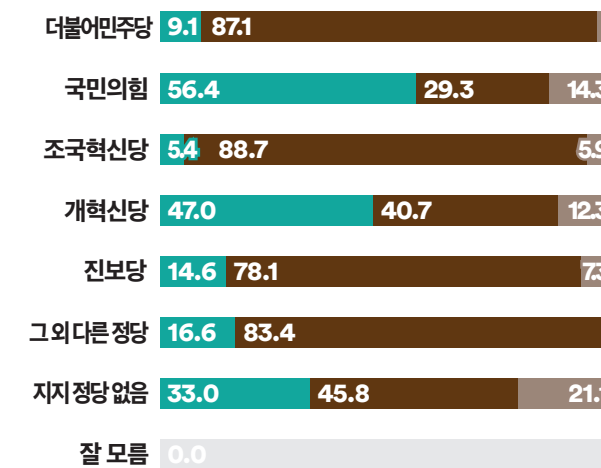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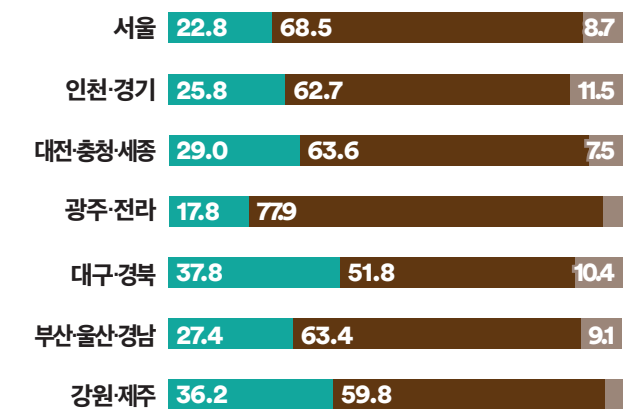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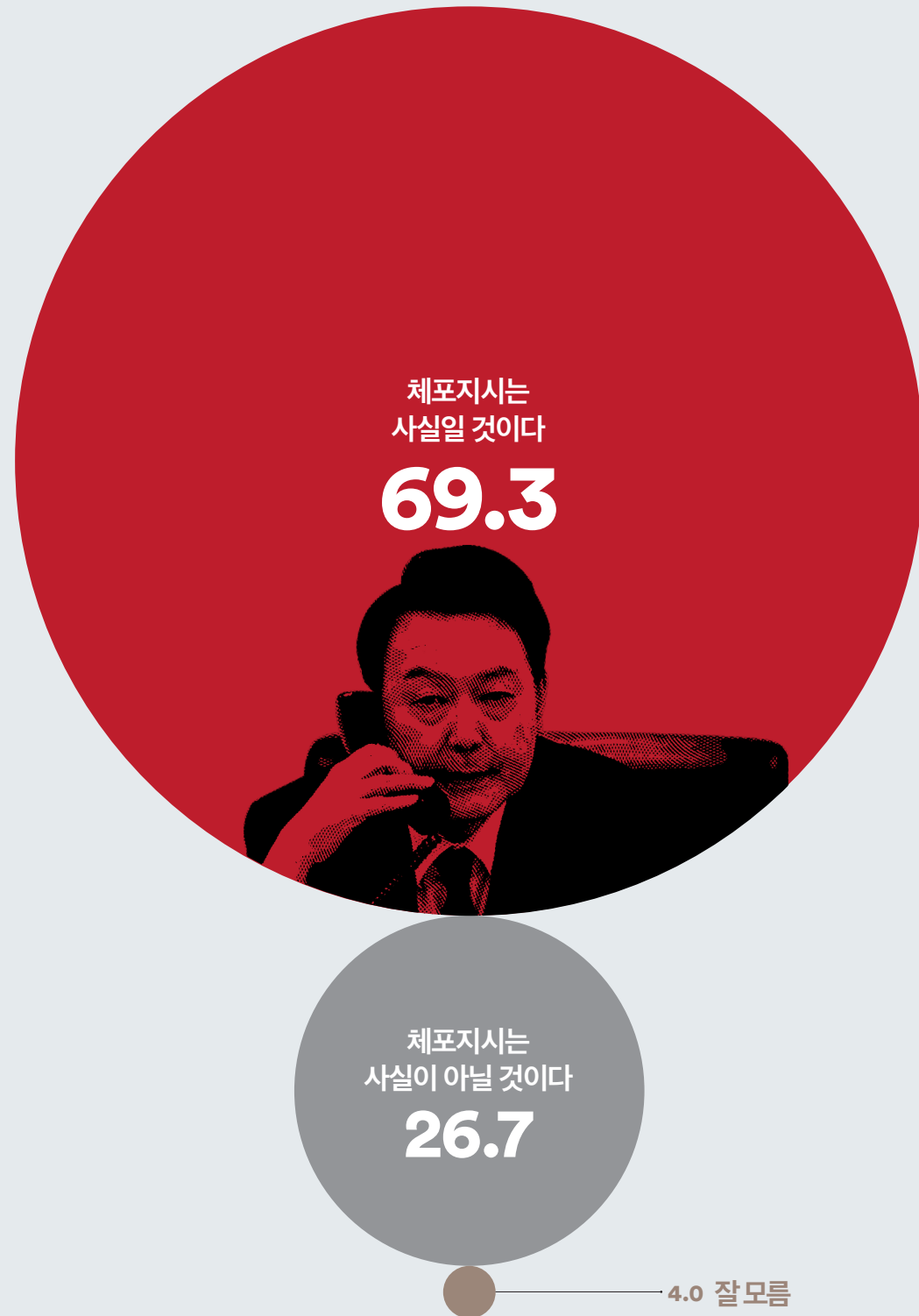


권역



■ 사실일 것이다 ■ 사실이 아닐 것이다 ■ 잘 모름

Q. 조지호 경찰청장은 검찰수사에서 ‘계엄 전후 대통령으로부터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재촉하는 내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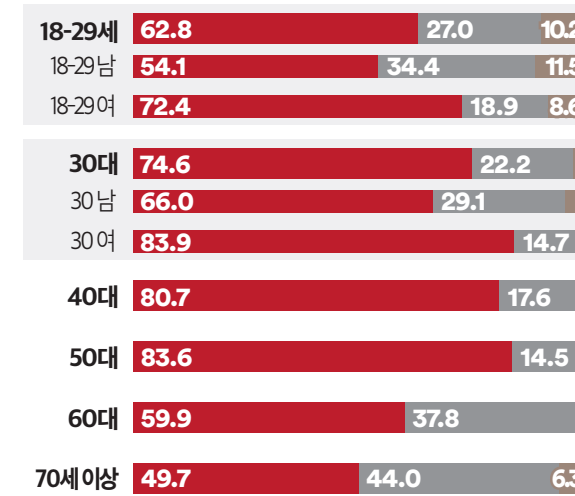


“계엄 전후 대통령으로 부터 온 6통의 전화 모두 국회의원 체포를 재촉하는 내용이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주장에 대해 응답자 10명 중 7명 정도가 ‘사실일 것이다’라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42.6%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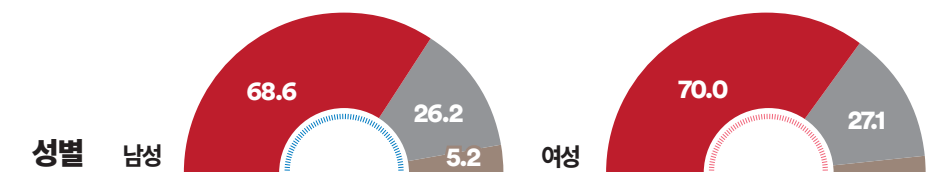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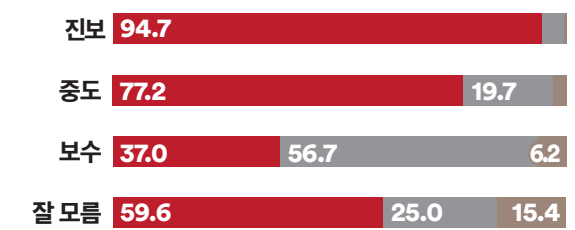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체포지시는 사실일 것’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77.3%), 보수층(56.7%)에서는 ‘사실이 아닐 것’는 응답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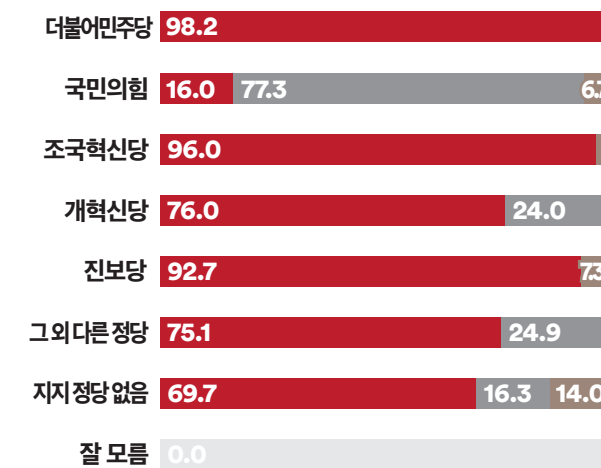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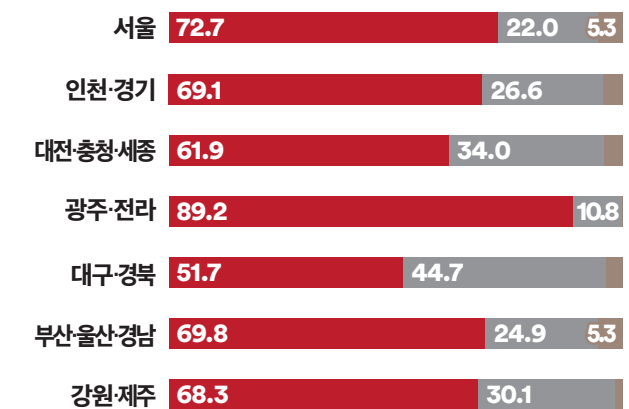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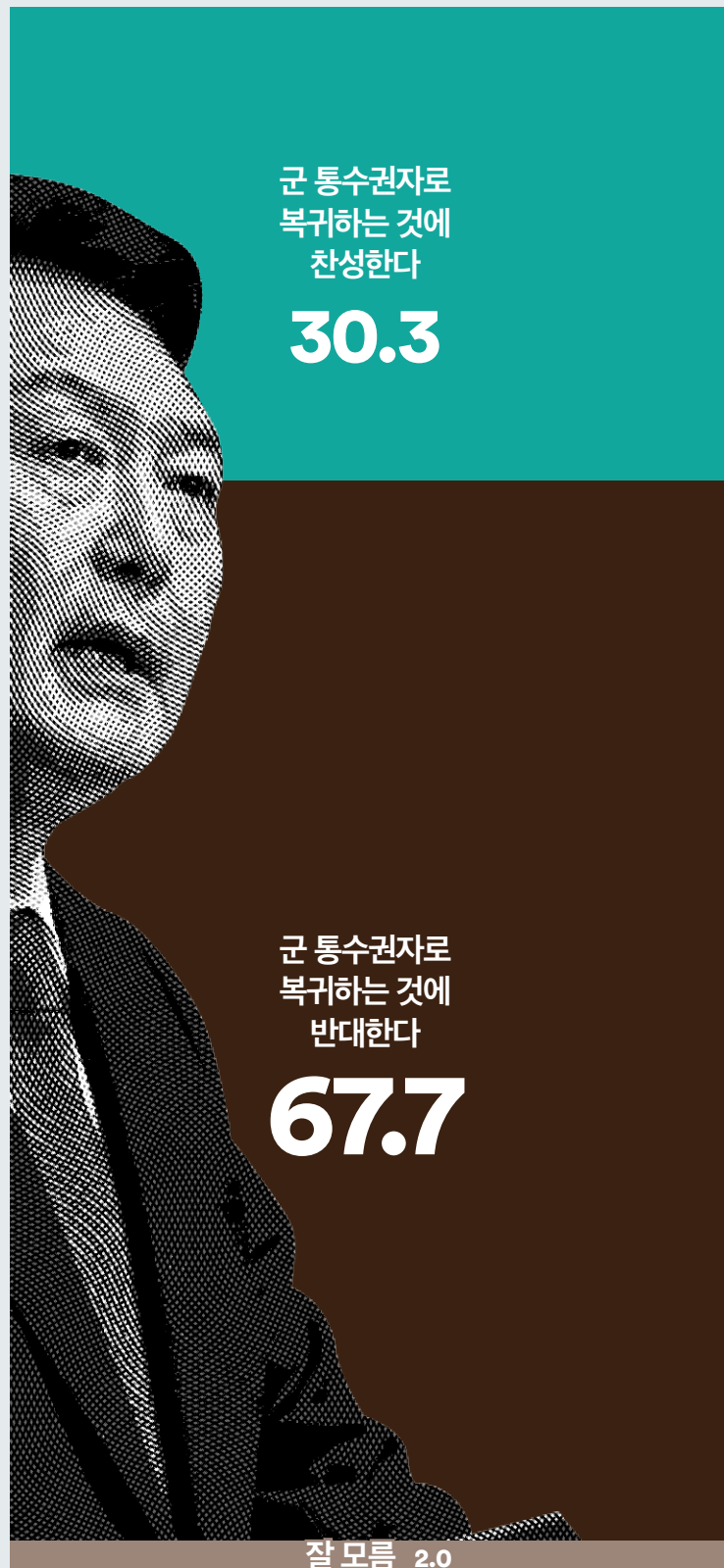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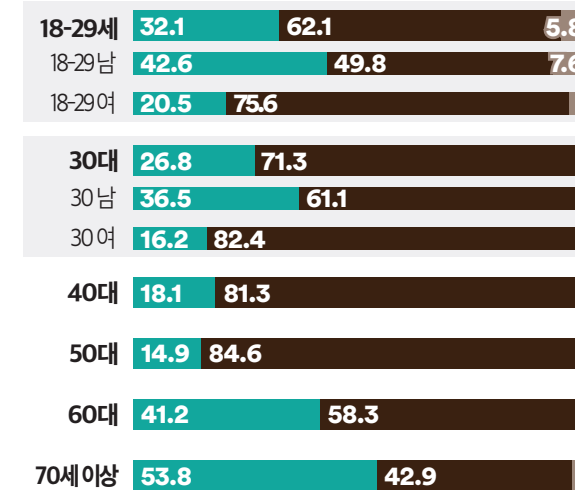
■ 사실일 것이다 ■ 사실이 아닐 것이다 ■ 잘 모름

Q.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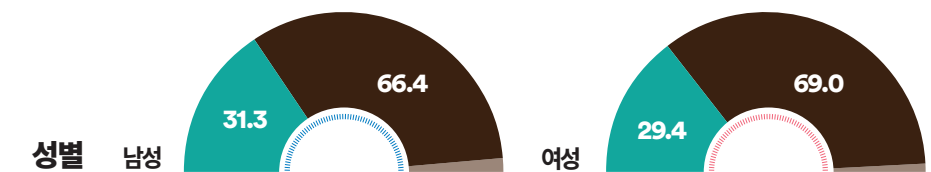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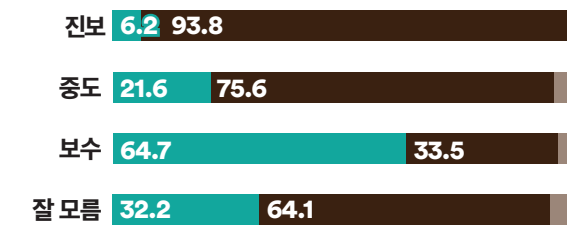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3명 중 2명은 '윤석열이 군 통수권자로 복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압도적으로 응답(응답 간 격차: 37.4%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 남·녀 모두에서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복귀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진보층(93.8%)과 중도층(75.6%), 지지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층(71.3%)에서 압도적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87.2%), 보수층(64.7%)은 '군통수권자 복귀에 찬성한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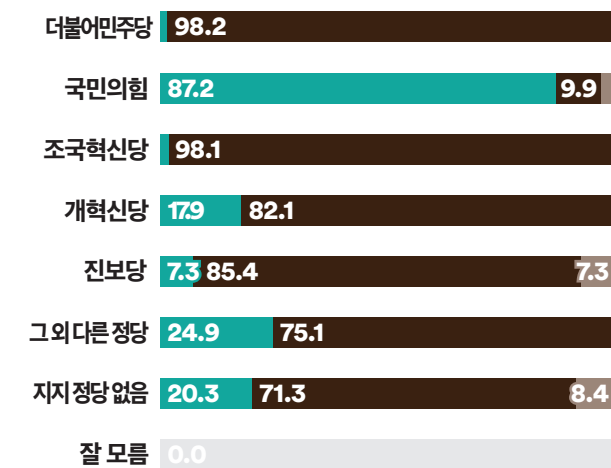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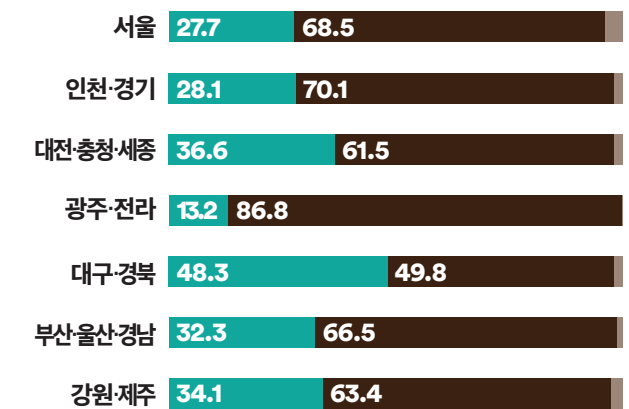
이념성향



정당지지도



권역



* 102차 정례조사 결과(2025.2.14~2.15 진행)

■ 찬성한다 ■ 반대한다 ■ 잘 모름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502_05
